

전통문화예술을 통한 한국의 문화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

- 한글을 중심으로 -

안장혁**

1. 들어가면서: 국가이미지 제고 전략, 문화브랜드가 희망이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즉 국가 경쟁력의 판단심급이 경제, 정치, 군사 등과 같은 이른바 ‘하드파워’적 지표로부터 문화나 국가이미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적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문화 제국주의’ 이니 ‘상징적 자산’이니 하는 용어들이 우리시대의 새로운 담론유형으로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실물가치’에 환원되지 않는, 말하자면 무형의 ‘상징가치’라 할 수 있는 한 국가의 문화지형과 국가이미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론적 기준모색에 대한 성찰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1) 말하자면 국가를 일종의 기호학적 환경으로 그리고 문화를 하나의 ‘텍스트’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79-AM0046)

** 동의대 문화콘텐츠연구소

1)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과제인 ‘유럽 5개국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브랜드 가치 및 국가이미지 수립을 위한 기호학 기반의 학제적 접근’이라는 연구과제의 2년차 연구부분에 해당함을 밝힌다.

로 각각 상징함으로써, 한편으론 국가이미지가 포괄하는 상징적·감성적 가치들의 심층구조를, 다른 한편으론 문화주체들(문화발신자와 문화소비자)간에 소통되는 심미적 의미작용을 기호학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자 시도했다.

본 프로젝트의 1차년 도에서는 이를 위한 자료체로서 독일의 대표 언론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국가이미지 혹은 문화이미지를 형성하는 주된 통로 중의 하나가 언론매체에 의한 텍스트적 관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표층적 차원에서 타자가 그려내는 우리 문화의 거시적 지형도를, 그리고 심층적 층위에선 우리의 문화기층에 깔려있는 신화적 구조를 타자가 어떤 방식으로 독해해내고 있는가를 주시하고자 했다.²⁾

이제 남은 문제는 타자를 통한 재귀관찰(통시적 차원)을 넘어서, 타자와의 공명(共鳴)환경(공시적 차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코드를 검토하고, 이를 재코드화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2차년도)의 문제의식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한국적 문화코드를 ‘전통문화(특히 한글을 중심으로)’라는 프리즘을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일차적으로는 근대화담론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온 전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한국의 문화브랜드 제고를 위해 이른바 한국의 전통적 ‘아비투스(Habitus)’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코드화 하자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다.³⁾ 이를 통해 우리는 향후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화의 무대에서 상호 문화적 주도 토포스로 자리매김 시키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안창혁(2006), 「독일의 대표적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접근 - FAZ 와 Der Spiegel을 중심으로」, 『카프카연구』, 제 15권, p183-208.

3) 전통이 고정적 실체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흄스바움의 테제는 제안하고자하는 ‘재코드화’개념을 보다 극단화시킨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 두 개념 간의 변별점을 찾자면, 만들어진 전통은 그 자체의 원형이 없는 한, 그리고 그 원형이 무수한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깃들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전통으로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흄스바움(박지향 외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1-15 쪽.

2. 전통문화의 재코드화 및 브랜딩 전략

2.1. 전통문화의 패러다임

다문화주의 시대를 맞아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담론들의 주된 테제가 ‘전통’으로 귀결되고 있다. 전통(민족)문화는 문화구성원들의 보편적 삶의 문법이자 세계 속에 민족의 존립근거를 주체적으로 마련하고 삶의 자주성을 획득해 주는 일종의 문화코드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라고 지칭되는 모든 영역들은, 한편으론 독자적 존재논리와 개별적 의미공간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이들 개별영역들의 상징성과 내적 원리를 메타층위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해주는 보편적 ‘에피스테메’를 필요로 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노선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통문화를 유/무형문화⁴⁾, 물질/정신문화 등으로 이분화해서 세목별로 접근하는 계열체적(미시적) 방법론과 전통문화 일반을 하나의 ‘대서사’⁵⁾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통합체적(거시적)분석을 도모하는 방법론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문화인류학적·민속학적·역사실증주의적·사회심리학적⁶⁾·해석학적·비교신화학적⁷⁾·구조주의적·문화기호학적 등의 방법론적 틀에 기댈 수도 있을 것이다. 계열체적 접근방식의 경우 ‘소서사’를 부각시키는 전

4)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은 서구에는 없는 순수 동양적 개념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 서만 제도권적 인정을 받고 있다.

5) 앞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서사’라는 용어는 리오타르의 ‘이야기 Erzählung’ 개념과 동일한 층위에서 사용될 것이며, 맥락에 따라서 보다 현대적 뉘앙스를 갖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와 병행해서 사용될 것이다.

6) 김광일, 『한국전통문화의 정신분석』, 1984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전통문화연구 50년』, 해안, 2007. 61쪽

7) 한국에서는 프레이저 J. Frazer나 해리슨 J. Harrison의 이론을 도입한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1971)의 연구가 선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문화연구 50년』, 60쪽

락을 통해, 그리고 통합체적 접근 방식의 경우엔 한국적 전통의 원형, 즉 한국적 멘탈리티의 심층코드를 총체적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한국적 ‘문화아비투스’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소르망은 2006 국제포럼 “문명과 평화”에서 한국의 경우 문명 간의 대화를 주도할 대표적 장르로서 “팝 컬처(rock music, TV sitcoms and popular movies)”⁸⁾를 추천한 바 있는데, 이는 그간 대외적으로 “편하되어온”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모더니티의 가치와 이미지를 부각 시킴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작업을 서둘러야한다는 시각으로 읽힌다. 이는 결국 자칫 독백에 머물고 말 고답적인 ‘전통’적 가치보다는 세계화에⁹⁾ 편승할 보편적 대화거리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일견 절차상의 오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족문화란 카시러 Cassirer가 강조한 바처럼 동시대의 구성원들이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가운데 유지되는 고유한 “상징형식”의 체계¹⁰⁾라는 점을 상기해보라. 말하자면 전통은 과거로부터 전승된 고정불변 하는 문화적 실체라기보다는 그것을 향유하는 주체들의 관심에 따라 ‘지금-여기’에서 재구성되는 문화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¹¹⁾ 국가(문화)이미지 제고 전략에 있어서 전통적 가치는 더 이상 모더니티의 그늘에 가려지는 의존변수가 아니라 독립상수임을 고려할 때, 필자가 제안하는 방법론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문화이미지에 대한 재검토 및 반성 작업 선행 → 전통적 원형가치 발굴 및 핵심 코드 도출 → 상호문화성을 염두에 둔 소통성 타진 → 타자(외국인)와의 공명共鳴 및 반향 정도 파악 → 재검토의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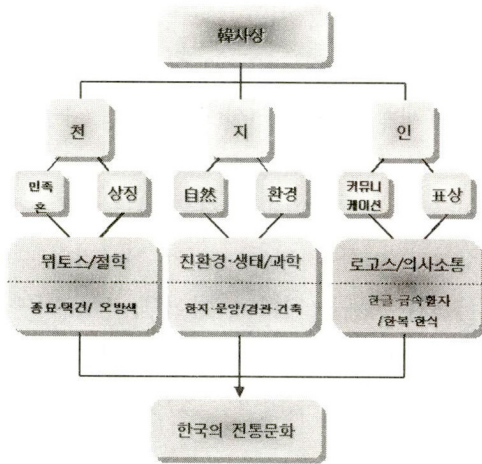
8) Guy Sorman, Dialogue, *A Narrow Road toward Peace*, The 2006 Global Forum on Civilization and Peace. pp18-24.

9) 세계화논리는 우리에게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원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국가 간의 내재적 경쟁체제를 부추기는 역설을 담고 있다.

10) 에른스트 카시러(오향미 옮김), 『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 개념』, 책세상, 2002, 18쪽.

11) 레이몬드 윌리엄스(이일환 옮김): 『이념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147-148쪽

2.2. 전통문화의 기호범주: 범주별 서사전략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열체/통합체적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대한 영역별 스펙트럼과 독자적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적 신화소에 근거한 ‘이야기 거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¹²⁾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란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모든 기호 형식들(제의, 춤, 장식, 의복, 음식, 기념물, 그림, 경치 등)이 드러내는 기호 작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별영역별 전통 양식들이 품고 있는 잠재적 메시지들을 타자(외국인)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재코딩화 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토리텔링의 기법과 스토리콘텐츠가 중요시 되는 대목이다. 스토리텔링은 개별 전통양식들이 담지해온 신화소들에 서사의 옷을 입혀 타자의 ‘상상계’를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창출해내는 문화적 연출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객관적인 정보 그 자체보다는 경험주체를 통한 잉여의 상징성을 전달한다는 의미이다.¹³⁾

12)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전통문화연구 50년’에서 견지하는 시각은 계열체적 범주화작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전통문화의 범주영역을 다음과 같은 5개의 대범주와 소범주로 세분화 하여 분석하고 있다.

①구비전승: 설화, 민요, 판소리, 민속극 ② 신앙전승: 자연숭배, 무속 ③의식: 혼인, 세시풍속 ④기예전승: 음식, 주거, 민속음악, 민속무용 ⑤공동생활구조 전승: 가족제도, 사회구조, 생업기술.

13) 벤야민은 이야기와 순수정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야기는 “빈 곳에

그렇게 볼 때 스토리텔링은 화자(발신자)의 잉여욕망과 타자(수신자)의 욕망결핍이 조응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욕망코드의 상호작용인 셈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흡입력있는 버츄얼리얼리티를 선사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 가치는 무엇일까?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의 서사를 소서사(계열체)와 대서사(통합체)로 나누어 중층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섬세한 해석을 기반으로 인류보편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체를 개발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의 주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사건과 존재물(캐릭터, 아이템, 장소)이¹⁴⁾ 갖는 고유한 메시지와 기호가치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후에 가치영역별 테마와 컨셉을 잡아야할 것이다.

2.2.1. 계열체적 서사전략

먼저 계열체적 서사전략을 보자면, 예컨대 2003년 경주세계 문화엑스포의 주제영상물로 기획된 「천마의 꿈」은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¹⁵⁾ 「천마의 꿈」은 한국의 전통설화를 바탕으로 한 입체애니메이션으로서 ‘만파식적 설화’, ‘의상대사와 선묘설화’, ‘기파랑 설화’등의 한국의 전통설화를 디지털 판타지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경복궁의 경우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산과 평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규모만 내세운 중국의 자금성이나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과는 달리 자연경관이 주요한 기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서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이에게 기억되기를 의도함/오랜 시간 전달 내용의 생명력과 유용성을 유지/사건·사물과 함께 체험한 사람의 흔적을 전달”하는 것이고, 정보는 “가까이서 일어나는 검증가능한 이야기/들은 이를 자극하기를 의도함/전달된 그 순간부터 내용의 유용성과 생명력 쇠퇴/ 사건과 사물의 순수한 실체를 전달”하는 것. 발터 벤야민(반성관 옮김),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170-172쪽.

14) 고육·이인화외, 『디지털 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3, 22쪽.

15) 앞의 책, 50쪽.

‘스토리텔링’의 콘텐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의 경우, 팔만대장경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불교적 원형사상 외에도 발전된 문자문명이라는 지식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유네스코에서 세계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한 바 있는 판소리는 ‘한恨’이라는 음의 에너지와 ‘흥’이라는 양의 에너지가 융합되어 불러일으키는 미적 정서를 서사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판소리는 원형 보존도 중요하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창조가 요구되는 예술 분야이다. 따라서 판소리를 세계 보편적 문화소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판소리 음악의 기호화나 전산화, 외국어로의 번역 등 실천적인 작업과 함께 외국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¹⁶⁾ 양(팽과리와 장)과 음(장구와 북)이 어우러진 상생의 원리와, 신명과 화합의 소리를 핵심코드로 하는 ‘사물놀이안 Samulnorian’도 그와 유사한 서사전략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가되어 공연자와 구경꾼간의, 그리고 남녀 노소간의 구분과 계급적 차별 없이 탈중심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는 전제는 세계인들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서사코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낙화암과 같은 경우엔 ‘백제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 삼천명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꽃처럼 떨어져 국가의 운명과 목숨을 같이 한 낙화암’과 같은 식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이다. 독일의 로렐라이의 경우 전설하나를 가지고 하이네는 시를, 슈베르트는 노래를, 화가들은 그림을 만들어냈으며 기업인들은 관광상품화에 진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라인강의 작은 언덕하나가 연간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관광자원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¹⁷⁾ 한지의 경우를 보자면, NASA의 지원을 받아 한·미 공동으로 한지를 이용한 우주선 보

1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455쪽.

17) 이어령, 『문화코드』, 문학사상사, 2006, 82쪽

호장비나 로봇제작 연구를 한 바 있고, 한지스피커, 한지로 만든 의복이 존재 할 정도로 일반 옷에 비해 원적외선 방사율이 최대 9배 높다는 사실을 핵심가치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복의 경우엔 융통성의 미학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양복은 체형이 바뀌면 처음 맞출 때의 허리규격과 달라져 바지를 입을 때마다 고통을 겪는데 반해, 한복은 처음부터 자로재지 않고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미리 디자인 되어있다. 품이 넉넉하기 때문에 풀어 입을 수도 있고 조여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치수가 잘못되면 옷에다 사람의 몸을 맞춰야하는 주객전도의 양복문화, 그것이 인간소외 현상을 낳는 것이라면 넉넉한 한복의 허리춤은 인간을 향하는 멘탈리티가 극대화된 융통성의 문화라고 서사화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2.2.2. 통합체적 서사전략

문화적 정체성이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전통과 타문화간의 접촉/길항/착종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탄력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체적 서사전략을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진화과정을 통·공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통미 형성과정의 내적 원리를 역사·맥락적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전통 재코드화의 작업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준다. 그런 후에 전통예술 중심의 메가 문화 이벤트(올림픽, 국제도서전 등)를 통해 세계인의 스키마를 자극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연을 기억하는 문화’, ‘구성원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세계관’ 그리고 ‘노동과 여가의 융합’등의 가치들이 지나가 버린 과거의 전통 속에서만 존재했던 이상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오래된 미

18) 제갈대일, 『한 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더불어 책, 2004. 146쪽.

래상'임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전통문화/서구문화/동아시아 문화 (중국, 일본) 등 3개의 거시적 패러다임간의 대화적 상호성과 복합적 역학구조를 조명함으로써 역사성과 내적 다원성을 파악해내는 일이 긴요할 것이다.²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서양의 문화적 코드차이를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최대한 경계해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베버식의 시각은 서양과 동양의 핵심기호를 역동성과 정태성이라는 이원 논리로 보고 있는데, ²¹⁾ 이는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코드가 '정중동(靜中動)', '한과 흥', '카오스모스' 등 양가적 가치의 기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전통가치가 조응해온 근대화/탈근대화 담론을 살피는 일이다. 과학·이성중심주의에 충실히 귀기울여온 근대적 '진보담론'은 근대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신념과 체도를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극복과 탈피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가치인 공동선과 유대감 그리고 심미적 감성과 자연친화적 감수성을 희석시켜왔다. 근대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자연과 전통문화는 개발가치가 적고, 비과학적인 미개문화라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 논리를 뒤집으면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심미성과 고도의 생태가치가 녹아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탈근대적 인식은 전통을 '근대성'의 도구적 합리성을 지적하는 일종의 '대항담론'으로 거듭나게 했다.²²⁾ 탈근대성담론을 통해 우리는 근대성을 내부로부터 해체해 근대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긍정의 요인

19) 이승환, 「한국의 문화적 지형과 전통담론」, 『지식의 세계』(박정호 엮음), 동녘, 1998. 203-226 (213 쪽)

20) 이명현은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중층론'을 내세우며 우리 문화가 갖는 '다름의 맛물림성'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문화연구원, 「새천년 한국문화를 위한 신 문법」, 『새천년의 한국문화, 다른 것이 아름답다』(이어령 외), 이화여대 출판부 1999. 163-194쪽

21) 유석춘 외, 『맑스베버와 동양사회』, 나남출판, 1992, 73쪽

22) 이승환, 앞의 책, 210쪽.

들을 새로운 계기들과 함께 재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식을 획득하게 된다. 이 경우 전통(특수)과 세계화논리(보편)간의 적실한 접점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 전통의 긍정적 측면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에 의해 파괴되고, 전통의 부정적 측면은 세계화의 긍정적 계기를 저해하는 상극효과를 야기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²³⁾ 근대/탈근대의 변증법적 기호작용에 기대어, 전근대적 전통 속에서 긍정적 기제로 작용해온 생태학 사상과 가치를 재코딩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²⁴⁾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의 코드범주를 심미적 코드/실용과 학적 코드/문화생태적 코드로 나누고, 이 범주 안에서 다시 소박·질박·자연미, 신명·풍류미, 흥과 한의 변증법, 복잡계·프랙탈적 미학²⁵⁾, 테라파 컨셉, 로하스LOHAS적 가치 등 의 핵심코드를 짚어보고자 한다.

2.3. 전통문화의 코드범주

2.3.1. 심미적 코드: 예술 종교적 코드

(1) ‘아우라지’: ‘아우라지’는 한마디로 ‘어울림’의 세계관을 의미한다. 유교적 문화전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이면서도 ‘아시아적 가치’를 변용하여 서구의 자유주의, 합리주의를 수용하는데 가장 개

23) 심광현, 『홍한민국』, 현실문화연구, 2005, 238쪽.

24) 이러한 시각에 반대하는 사상가로는 독일의 칼 만하임이 대표적이다. 칼 만하임은 한 시대 안에 상이한 것들이 공존한다면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 보았다. 즉,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일을 무질서의 원인으로 보고 다만 하나의 동질적 원칙만이 일관되게 적용되기를 바랐다. Karl Mannheim, "Die Ungleichheit des Gleichzeitigen." Mensch und Gesellschaft im Zeitalter des Umbaus, Leiden: A.W. Sijthoff, 1935, 14-16쪽.

25) 이와 같은 시각은 심광현에게 크게 맞고 있다. 심광현은 우리 전통문화의 ‘프랙탈’적 유전자에 주목함으로써 생태적 코드에 기반한 한국문화를 재창조하는 길을 모색한다. 심광현, 『홍한민국』, 현실문화연구, 2005.

방적인 점이 이를 말해준다. 예컨대 윤이상은 동북아 전통음악의 음악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서구악기로 연주하는 기법을 만들어냈다.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주요음Hauptton과 주요음향기법 이론 그리고 음악적 실천양식은 전통-현대, 한국-서구예술의 다양한 자원을 창조적으로 접합한 ‘어울림’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그의 음악에서 드러나는 ‘상생적 서사구조’가 세계인들에게 ‘평화지향적 서사구조’로 심화·확산될 수 있었던 미적 계기가 바로 아우라지적 심미성 때문이었다. 우리 문화의 심미적 코드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감성기호는 풍류미다. “풍류미는 놀이와 예술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 진리와 도의 탐구”²⁶⁾ 등 지적·윤리적·심미적 코드가 함께 드러나는 총체적 기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를 대상과의 객관적 거리감으로부터 취하고자한 서구미학과는 달리, 우리의 풍류미는 미의 주체와 대상, 미의 창출과 수용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체가 중요한²⁷⁾ 아우라지의 미학인 셈이다.

(2) ‘흥興’→‘한恨’, ‘한’→‘흥’ : 우리의 전통미에서 흥과 한은 생성·순환적 생명미학을 대표한다. 한에는 모두가 하나가되는 ‘일체감’이 있고 흥에는 하나가 모두로 확산되는 다이내믹한 역동성이 숨쉬고 있다. 심광현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깃들어있는 기호작용을 흥/한의 변증구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음식과 전통건축, 정원의 조성과 복식, 기공과 한의학 등 모든 생활문화의 기층에는 프랙탈 흥의 미학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⁸⁾ 한국의 ‘흥’에는 대상과의 일체(물아일체)/ 부분에서 전체로/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역동적·참여적·상승적·생태학적 코드가 담겨져 있다.

(3) ‘카오스모스’: 카오스모스는 혼란스런 균형, 혼돈적 질서, 역동

26) 심광현, 69쪽.

27) 신은경, 『풍류,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보고사, 1999.16쪽.

28) 심광현, 23쪽.

적 균형미 등을 의미한다. 우리의 전통사상은 미분절 상태인 Chaos와 분절화 되면서 변별적 특징을 획득해가는 cosmos가 공존하는 미학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이나 ‘ 짹짹~ 짹 짹짹’ 등과 같은 붉은 악마의 응원기호들은 카오스모스적 기호작용을 드러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칭적(이분법적) 박자감(질서)을 거스름으로써 역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일탈의 기호작용이 붉은 악마의 ‘엇박’함성 속에서 일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하의 시각을 빌리자면 앞의 3박이 역동·변화·혼란·움직임, 즉 양/남성/하늘/불이라면, 뒤의 2박은 안정·균형·평화·질서, 즉 음/여성/땅/물의 기호라고 할 수 있다.²⁹⁾ 엇박은 유클리드 적으로 구획된 질서의 박자가 아니라 프랙탈한 불규칙성의 변주를 생명으로 하는 역동적인 박자라고 할 수 있다.³⁰⁾ 서구의 멘탈리티가 코스모스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길어 올렸다면³¹⁾ 우리의 사고원형은 코스모스와 카오스의 상보성 속에서 순환과 회귀의 세계관을 움켜쥐었다.

(4) 복잡적응계/프랙탈적: 복잡적응계/프랙탈적 코드는 서구의 인과론적·환원주의적 가치관에 대립되는 코드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에는 자연의 불규칙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껴안거나 활용하려는 태도가 배어있음에 xx반해, 서구의 ‘근대화’는 자연을 규격화함으로써 프랙탈을 유클리드화하는 과정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5) 퍼지적 자연미: 퍼지성이란 1/0, 유/무의 논리처럼 디지털적 이분법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무한히 열려있는 아날로그적 스펙트럼을 의미한다.³²⁾ 예컨대 ‘두서너 時’와 같은 한국적 시간표현방식이나 한옥의 처마 같은 곡선미는 일견 매우 모호하고 애매한 시간관념과 형

29) 김지하, 『화두』, 화남, 2003, 27쪽. “카오스모스”라는 용어는 김지하가 들뢰즈와 가타리로부터 차용한 용어로 보여진다.

30) 심광현, 287쪽.

31) 김기덕, 『한국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7, 77쪽.

32) 심광현, 62쪽.

상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퍼지논리학에³³⁾ 따르면 이는 폭넓은 미감범주와 고도의 생태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한식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날 것을 0으로 보고 구운 것을 1로 보았을 때, 한식의 ‘곰삭인 맛’과 비빔밥은 퍼지적 미각영역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의 근대화논리가 이처럼 모호한 퍼지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오늘날과 같은 탈근대적 사회에 와서는 오히려 이러한 애매모호함이 주목받게 되었다. 예컨대 퍼지이론을 이용해서 세탁물의 엉킴현상을 해결한 카오스 세탁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정확한 합리성보다는 애매모호하고 혼돈스러워 보이는 퍼지와 카오스가 더 유용하고 인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³⁴⁾

2.3.2. 문화생태학적 코드화 : 자연을 기억하는 문화

독일의 문화학자 아스만Jan Assmann은 인간의 ‘기억’행위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면서, 그 중 특히 집단적 기억형태와 관련하여 “소통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을 강조 한 바 있다.³⁵⁾ 이 두 기억은 모두 기억주체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전체가 과거의 공동체적 행위와 신념체계를 기억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는다. 하지만 소통적 기억이 단순히 ‘기원Ursprung’이나 ‘원형Archetype’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신화적 기억이라면, 문화적 기억은 집단적 정체성의 “보편의미Gemeinsinn”³⁶⁾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되어 왔는가를 주시하는 사회적 기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기억

33) 김상원·이성은, 『퍼지미, 퍼지철학, 퍼지인간관리』, 전자신문사, 1995, 6쪽.

34) 제갈태일, 『한 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더불어 책, 2004, 275쪽.

35) Jan Assmann,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ünchen, 1997, pp.36-40.

36) Jan Assmann, p. 140.

은 단순히 ‘절대적 전통가치의 보존’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전통에 절대성을 보증해준다는 것은 전통을 모더니티의 대립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분구도에 갇히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스만의 테제는 전통가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적지않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의 전통사상은 자연을 타자화된 지식의 대상으로 보는 서구의 ‘에피스테메Episteme’가 아니라 자연을 지혜의 터전으로 삼는 ‘프로네시스Phronesis’를 지향해왔다. 이는 자연을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동근원성을 일깨워주는 문화라는 의미이다. 생태위기와 사회문화적 위험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적 재코드화는 이런 의미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³⁷⁾ 예컨대 독일은 문명과 자연(환경)간의 공존 논리에 충실해온 몇 안 되는 환경선진국이다. ‘라인강의 기적’이 독일의 기술 선진성을 함축하는 메타포라면, 친환경주의·친자연주의는 독일이 표방하는 환경 선진적 기치라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우리가 대독문화교류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한 가지 중요한 전략적 노선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생태주의’나 ‘웰빙주의’ 같은 친자연성을 테마로 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2005년 프랑크도서전 주빈국 행사의 일환으로 프랑크푸르트시에 한국 정원을 건립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3.3. 로하스LOHAS적 가치실현³⁸⁾

산·수·방위·인간을 하나의 생명네트워크로 파악했던 풍수지리 문화의 탈근대적 실천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생태와 문화적 활용

37) 심광현, 45-46쪽.

38)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서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나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간의 선순환적 피드백원리를 코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연을 대상화 및 도구화하는 기계론적 발전사관이 아니라, 자연적인 氣의 순환에 부응하며, 자연지형이 잉태해놓은 프랙탈한 형상과 기운에 共鳴하려는 생태학적 태도를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의 한옥은 주름진 자연지형을 건축의 내재적 구성원리로 끌어들이는데,³⁹⁾이는 겨울의 온돌과 여름의 마루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공존해있는 생태형 공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지형을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대상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주거-물-산-바람-햇빛 등의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생동하는 생태기호로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웰빙이라 할 수 있는 로하스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4. 실용과학적 코드화: ‘테카르트(Tech + Art)’

실용과학적 코드화 전략에서는 자연적 ‘신화소’를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점과 웰빙코드에 상응하는 테라피 컨셉을 우선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온돌문화⁴⁰⁾, 김치냉장고 등을 통해서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테카르트’적 가치를, 그리고 향(↔향수), 황토방, 숯 등을 통해서는 영성적 문화가치와 테라피적 기호를 문화코드화하는 서사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39) 심광현, 176쪽.

40) 건축설계개발회사 코다(CoDA)는 지난 9월 웨일스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 중인 스완지 시 재개발 프로젝트(SA1)의 주거시설 신축사업을 따내 5~10층짜리 10개 동 397가구를 온돌 방식의 한국형 아파트로 짓게 됐다. 코다측은 “한국이 온돌마루와 정보통신기술을 앞세워 경쟁한 영국 경쟁사들을 입찰에서 물리쳤다”며 “유럽에, 그것도 온돌을 앞세워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주간한국 2006. 12. 26

2.4. 전통 재코드화 전략의 성공사례 : ‘신 일본양식 Neo Japanesque’

일본이 전통 재코드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Neo Japanesque’를 국가 브랜드 전략의 새 가치로 표방하고 나섰다. 이러한 전략적 새틀짜기의 배경에는 그간 일본의 국가 브랜드로서 첨단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Made in Japan’이, 한국과 중국 등의 추격으로 인해 대표성과 차별성이 희석화되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존의 첨단기술력이라는 하드파워적 브랜드에다 전통적 가치라는 ‘소프트 파워적’이미지 기호를 접목시킴으로써, 기존의 ‘이코노믹 애니멀’이미지로부터 차별화된 국가 브랜드 (이미지)제고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한 시도로 읽힌다.

2.4.1. 유럽 내 일본 (전통)문화의 소통미학 : 스밈과 배어남

(1) 지적 코드: 1970년부터 유럽에 진출 해있는 하이쿠동호회를 통해 일본의 전통시인 하이쿠를 유럽의 엘리트 문화로 정착시켰으며, 약 50여국(1000만 명 이상)에 하이쿠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했다.

(2) 민족성 코드: 일본의 전통무술인 검도와 사무라이 정신을 통해 정중함, 예의, 신의, 검소, 용기 등의 민족성코드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의 ‘스밈과 배어남’의 전략이다. ‘스밈’이 타자에게 자기 것을 내보여주는 발신행위라면 ‘배어남’은 타자가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고유의 방식으로 체화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내에 “다께다 가문”을 이어가는 외국인인 늘어간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해준다.⁴¹⁾

41) 같은 ‘사소’ 자라도 일본의 무사사회와 한국의 선비사회에서의 기호작용이 다름도 주목할 만하다. 한·일 간의 민족성 코드를 일반화를 무릅쓰고 비교하자면, 일본의 민족원형

(3) 패션 코드: 기모노(전통의상)와 구마도리(가부키 배우의 입체화장술)를 통해 일본의 ‘전통미’(마네킱)를 ‘세계미’로 증폭시키는 전략을 펼친다.

(4) 심미적 코드: 일본의 민예품(옷칠 공예)은 독일의 바우하우스 Bauhaus와 조선의 가구공예예술을 창조적으로 수용한 경우이다. 유럽의 모던한 디자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장식을 배제한 단순함”과 일본 고유의 미니멀리즘을 융합하여 재코드화 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5) 판타지 코드 : 만화/게임 등과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주인공 캐릭터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시도한 전략이 유효했다. 캐릭터의 의상(코스프레)체험 및 게임을 통해 음악까지도 자연스레 경험할 수 있게 한 패키지테마화가 주된 전략이다.

2.4.2. ‘Neo Japanesque’가 주는 시사점

(1)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차별화된 국가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하는 ‘법고 창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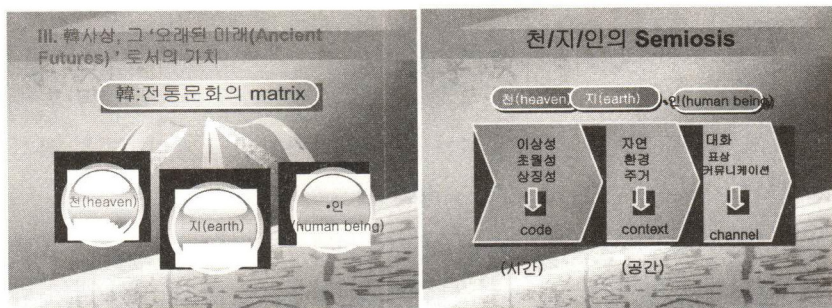
(2) 스밈(작용)과 배어남(창조적 수용)의 소통성에 기반하는 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일본의 민족성코드에서 밝힌 바처럼 문화의 발신주체와 수신주체간의 상호작용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전통문화가 독일에 스며들어간 경우를 보자. 광부와 간호사 파견이라는 역사적 특이성에 주목한다면, 독일은 유럽에서 한국의 교포문화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따라서 독일이 경험하게 된 ‘한국적인 것’이란 이들 교포들을 통해 접하게 된 문화유형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태권도와 같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독일

이 하드웨어적(타자와의 물리적 결투형)이고 철저한 복종형이라면 한국적 민족코드는 소프트웨어적(내면화된 자기수련형)이고 평등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들의 심상에 초기이미지로 각인되어온 셈이다. 그러나 문화전파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불가피한 경우이긴 하지만 교포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일반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원활한 정보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독일내의 한국문화에 대한 기존의 잠재적 문화 향유층들을 실제적인 마니아층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보다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프로그램 마련이 화급한 과제인 셈이다.

3. 韓 사상, 그 오래된 미래로서의 가치

3.1. 天·地·人: 전통문화의 매트릭스



한사상은 천지인의 합일을 이상적인 삶의 철학으로 여겨온 우리 민족의 원형적 사고구조이다.⁴²⁾ 하늘과 땅의 분리를 세계신화의 기저 모티브로 삼고자 한 서구적 원형사상과는 달리 한사상에서는 창조자/

42) 한사상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로는 제갈태일의 『한 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더불어 책, 2004과 이상학의, 『한·한·한의 비밀과 사명』, 하권. 대원출판, 2003이 추천할 만하다. 이들 책에서 한의 내면적인 사유체계를 '조화성/ 통일성/무정일치성/평화지향성' 등으로 나누어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자한 시각이 돋보인다.

피조자의 이분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하늘과 땅으로 표상되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할 뿐’둘 사이에 어떠한 위계적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인간은 두 차원의 자연을 조화시키고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실천의 주체로서 행사한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하늘/땅)간에는 “중속커뮤니케이션”⁴³⁾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순환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된다. 즉 한국 전통문화의 매트릭스는 천·지·인 + ‘間’으로 상징되는 “코스몰로지”라 할 수 있다.⁴⁴⁾ 가령 우리말에서 1인칭‘나’와 2인칭‘너’가 같은 자음으로 시작되고 다만 모음에서만 ‘ㅏ’와 ‘ㅑ’로 달라질 뿐이라는 점은 주/객을 분리하지 않고 타자와 나를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사상의 핵심코드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서양철학의 존재론이 ‘있음’을 추구한 유의 철학이자 실체론을 지향했다면, 한사상의 근간은 ‘없음’과 ‘사이’를 추구한 무의 철학이자 관계론 중심이었다.

시간 (천)	정신/개념	철학
공간 (지)	질료와 소재	과학
인간 (인)	생명/창조적 활동을 통해 개념과 질료를 결합해내는 예술적 포에시스	문화 창출의 주체

〈삼간(三間)의 기호작용 Semiosis of 3 Between〉

3.2. 한사상의 미적 층위

한사상이 드러나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 영역별 중층가치와 미적 층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타자에게 제시할 한국 전통사상의 영역별 핵심 가치를 도출하는 것도 의미미한

43)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4, 145쪽.

44)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25쪽.



작업이 될 것이다. 한사상의 미적 층위는 자연미/예술미/문화미 등의 복합적 패러다임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미적 가치 및 범주와는 달리 한사상의 미적층위는 위계적

이지도 대립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상보적이며 관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자질층위를 굳이 구별하자면 자연미는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환경에의 적응을 통해 자연의 원형가치를 아무런 여과 없이 드러내는 미적 층위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술미는 능동적인 자연 모방을 통해 드러내는 인공미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문화미는 자연이라는 텍스트기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안의 심층코드를 읽어내는 창조적 지성미Poesis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표정을 읽어내는 행위에 다름 아닌 모방Mimesis은“대상의 구체적인 감각적 성질을 충실하게 보존하려는 시도인 만큼, 동시에 그 객체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⁴⁵⁾ 이에 비해 포에시스는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재해석해내는데서 얻어지는 미적 경험을 말한다. 즉 자연과의 미적 거리감을 뒤편으로써 “심미적 정취”⁴⁶⁾를 극대화시키는 역설의 미학방식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글은 감각적(구체적)인 기호를 통해 정신적(보편적)인 것을 표현해내는 문화적 상징형식이라 할 수 있다.⁴⁷⁾

45) 에른스트 카시러(오향미 옮김),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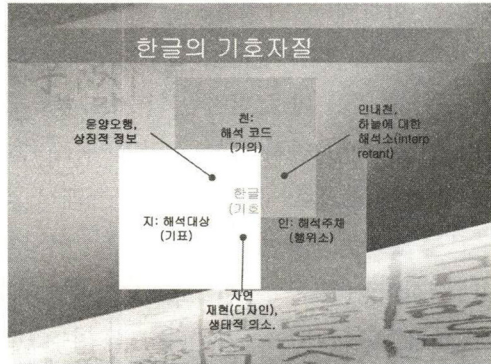
46) 앞의 책, 44쪽.

정리하자면 한글은 인위적으로 만든 글자지만 형식(제자 원리)으로 보나 내용(사상)으로 보나 천지자연의 질서를 반영한 가장 자연적인 문자이다. 그리고 한글은 카시러의 논법을 빌리자면 “대상 그 자체의 모방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 정신에 각인된 형상의 모방”⁴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한글의 상징형식이 단순한 미메시스 차원이 아니라 포에시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4. 전통문화의 대표브랜드로서의 한글

4.1. 한글의 기호자질

퍼스적 의미에서 중국한자나 일본의 가나 가 도상기호 에 가깝다고 한다면, 한글은 상징 기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글은 대상을 상징형식으로 재현해내는 방식이 각각의 자연 기호



에 고정되어 머물러있는 한자와는 달리 자연 공간(하늘과 땅)과의 “상상적 접합점”⁴⁹⁾을 표현하는 상징방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한글은 한사상(천지인사상)전체를 함축하면서도 한사상에 의해서 비

47) 앞의 책, 19쪽.

48) 앞의 책, 21쪽.

49)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177쪽.

로소 해석의 형식을 부여받는 해석학적 순환코드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늘을 인간이 지성과 행위를 통해 상호교감 할 수 있는 대상이자 일종의 해석코드로 상정할 경우, 한글은 천·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형식화하고자 하는 의지Wille zur Form”⁵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이나, 땅과 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신토불이 사상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의 기본 형태를 분석해보면 천(·)지(ㅡ)인(丨)과 원방각(○□△)이 기본형을 이루고, 자음체는 원방각이 조금씩 변화된 형태들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특히△는 사람을 의미하는 人 에 一자를 받침으로 하여 만든 것이기도 하다.⁵¹⁾ 한글은 인간의 신체기관에서 나오는 음성의 분절에 의해 형성된 기호소리를 내는 입을 기준으로 보면, 윗입술은 하늘이요, 아랫입술은 땅이며, 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을 각각 목구멍, 입모양, 이(齒)의 형태로 보기도 하는데,⁵²⁾ 이 경우 한글은 바로 ‘천지인’의 기호작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태어난 아기가 제일 먼저 내는 소리인 ‘옴(우주창조음)’은 바로 이 천지인(○□△)세 소리로 구성되어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나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는 ‘옴’에서 시작한다.⁵³⁾ 이렇게 본다면 한글은 천지창조의 신화작용(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이 이루어지는 인류의 “원문자 Urschrift”⁵⁴⁾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글은 음소 단위 글자를 사용하면서도 이들을 음절 단위로 배열함으로써 과학적 문자 체계가 요구하는 두 가지, 즉 ‘기본 글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요건과 ‘지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읽기 효

50) 에른스트 카시러(오향미 옮김), 77쪽.

51) 이상화, 『한·한·한의 비밀과 사명』, 하권. 대원출판, 2003, 464쪽.

52) 김민수 외, 『외국인의 한글연구』, 태학사, 1997,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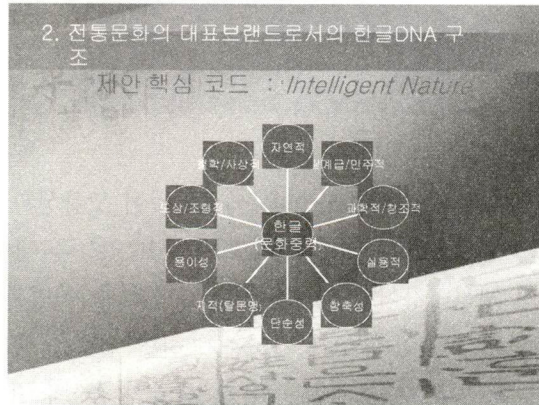
53) 이상화, 465쪽.

54) 데리다(김성도 역),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1996, 62쪽.

과가 극대화돼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이 때문에 “인류가 고안한 문자 체계 중 인지과학적으로 가장 진보된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글 자음의 제자 원리와 독창적 디자인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4.2. 한글의 재코드화 및 브랜딩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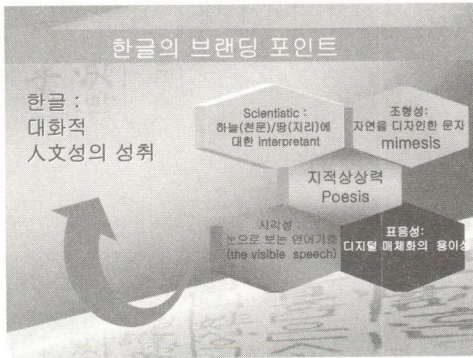
한글은 우리의 전통철학과 과학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글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브랜드로 거듭나



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전통문화라는 거대한 기호체계 안에서 한글이 갖는 문화DNA를 추출하고 이를 브랜드화 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전통문화의 자장권안에서 문화중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글의 핵심코드는 무엇일까? 이는 향후 우리가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문화브랜드 가치를 증폭시키는데 필요한 ‘이미지 포지셔닝’전략과도 관련한 물음이 될 것이다.

본고는 한글의 재코드화 및 브랜딩전략을 시각코드/ 과학실용성 코드/용이성코드/철학사상적 코드/ 탈계급(민주)코드 등 총 5개의 코드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4.2.1 시각 코드



한글이 세계의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끄는 요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자음과 모음의 차이를 정확히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의 차이를 문자모양에서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다는 사실이다.⁵⁵⁾ 이는 외국인들이 도상성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글의 시각적 코드에 주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컨대 프랑스의 패션디자이너 이렌은 “한글은 현대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샘슨은 “한글의 그래픽적 요소의 간명성이 학습효과를 높이고, 한글의 음절적 조직은 처리와 독법상의 능률을 극대화 시킨다”고 밝힌바 있다.⁵⁶⁾ 한글이 갖는 시각적 포인트를 테마화 하는 작업은 물론 국내의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를테면 이숙재 교수는 ‘신용비어천가’, ‘한글 새천년의 꿈’, ‘움직이는 한글’ 등 한글을 형상화한 춤을 개발함으로써 세인의 주목을 끌었고,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는 “한글에 디자인을 입히는”작업을 통해 한글 재코드화와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이상봉씨는 2007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이하니 양이 입어 눈길을 끈 티셔츠에 적힌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을 디자인했었다. 그리고 지난 2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프

55) 김미경,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한글』, 자우출판사, 2006, 65쪽.

56) 제프리 샘슨, 『세계의 문자체계』, 한국문화사, 2000, 188쪽

레타 포르테 파리 컬렉션'에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한 구절로 디자인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뿐만 아니라 LG 전자의 한글을 입힌 휴대폰인 '샤인폰' 역시 그의 작품이다. 이외에도 한글무늬의 보도블록을 깎다거나, 한글을 형상화한 조각이나 예술품으로 테마화한 한글체험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한글의 시각코드를 활용할 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을 '세종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바꿔 입국과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세종과 한글에 대한 초기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출국 시 그들이 사가는 기념품을 한글무늬로 디자인된 포장지로 싸가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행사나 혹은 개인적 교류차원이라도 외국인들에게 한글로 이름 새긴 도장을 선물함으로써 한글을 브랜드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4.2.2. 과학실용성 코드

한글의 과학실용적 코드는 '한 문자 한 발음'의 특성과 인쇄·필기체와 대·소문자의 구별이 없다는 원칙에서 기인한다. 한글의 이러한 특성은 무엇보다 문자메세지 송출 속도가 한자/일본어보다 7배나 빠르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영어알파벳과 비교해보아도 운용체계의 합리성과 실용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가령 우리말의 [오] 소리의 표기는 '오'하나면 되지만, 영어 알파벳의 경우 [ou]발음을 표기하는 유형이 so, sew, sow, oh, owe, dough, doe, beau, soak, soul 등 10가지나 된다.⁵⁷⁾

그리고 예컨대 '널 사랑해'와 'I love you'의 휴대전화 자판 횟수를 비교하면 한글은 18번, 영문은 커서를 옆으로 옮기는 것을 빼고도 26

57) 김미경, 86쪽.

번이나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한글 자판은 왼쪽은 자음, 오른쪽은 모음으로 입력기능이 인체공학적으로 범주화 되어있음에 반해, 영어는 모음 글쇠 위치에 일정한 규칙이 없고 입력할 때 ‘read’ 처럼 오로지 왼손으로만 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문 자판을 쓰면 한글로 쓸 때보다 컴퓨터증후군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LG전자의 ‘획추가’버튼은 소위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하는 ‘테크아트’(Tech+ Art) 마케팅의 관점에서 볼 때, 한글의 과학실용적 코드를 활용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가령 ‘ㄱ’을 누른 후에 ‘획추가’버튼을 누를 경우 ‘ㅋ’이 되는 원리인데, 이는 세종이 고안한 ‘가획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⁵⁸⁾

한글 사용의 과학적 실용성과 독창성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원리는 모든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되며 이때 초성과 종성이 동일한 성질의 표현기호라는 사실이다.⁵⁹⁾ 이는 앞서 언급한 천·지·인의 순환커뮤니케이션작용과도 관련된 것으로서, 한글이 글자사이의 상관성과 응용력이 뛰어난 문자라는 점을 입증해준다. 예컨대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자판설계의 원리는 훈민정음의 원리인 ‘천지인’기호를 구현하고 있다.⁶⁰⁾

4.2.3 철학사상적 코드

한글은 인간의 소리를 자연의 기호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자연기표(환유)와 인조기호(은유)의 이상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기호작용을 일으키는 사상적 근간은 물론 음양오행사상이다. 이는 아

58) 김영옥, 『한글 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 루덴스, 2007, 187쪽.

59) 앞의 책, 228쪽.

60) 앞의 책, 188쪽.

래에 제시된 표처럼⁶¹⁾ 인간의 소리인 오음(아·설·순·치·후)이 오행/오위/오색/오상/오시 등의 자연의 범주에 그대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세계관에서도 확인된다.

자형 字形	음명 音名	오행 五行	오시 五時	오음 五音	오위 五位	오색 五色	오상 五常	오장 五臟
ㄱ	아	목	춘	각	동	청	인	간
ㄴ	설	화	하	치	남	적	예	심
ㄷ	순	토	추하	궁	중앙	황	신	비
ㄹ	치	금	하	상	서	백	의	폐
ㅇ	후	수	동	우	북	흑	지	신

한글은 이처럼 한국적 철학과 사상일반에 대한 “기호론적 우주의 모델”⁶²⁾이자 심층적 문화해석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4.2.4. 탈계급(민주)코드

조선과 같은 봉건제도하에서 민중지향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의 음소문자가 통치자의 의지로 창제되었다는 ⁶³⁾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일종의 “문화적 독립선언”⁶⁴⁾이며, 대내적으로는 탈계급화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혜궈이 말한 “동양은 오로지 한 사람만이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코드를 만들어낸 셈이다. 한글창제는 양반과 일반 백성이 지식과

61) 전정례·김형주, 『훈민정음과 문자론』, 역락, 2002, 102쪽.
62) 이어령, 『우리 문화 박물관』, 디자인 하우스, 2007, 249쪽.
63) 예컨대 한자는 신분에 따라 쓰이는 문자도 달라진다. 그래서 문자만 보아도 동작의 주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만큼 계급적이고 위계적이라는 의미이다. 김영욱, 63쪽.
64) 김영욱, 53쪽.

정보를 공유하여,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마련한 일대사건이었기 때문이다.⁶⁵⁾

5. 결론을 대신해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언어는 인간의 사회활동이나 문화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스마트파워’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 그 문화를 홍보하는 가장 본질적인 채널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언어자체가 국가이미지와 문화브랜드 가치를 전인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특히 한글을 통해 한국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을 연구취지로 삼았다. 이를 위한 주된 작업가설은 전통문화별 맞춤형 서사 전략과 한글 재코드화를 통한 브랜딩전략이었다. 이는 우리민족의 삶의 보편문법이자 문화적 아비투스라 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서사의 틀로 들여다봄으로써 향후 외국인들과 교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화코드를 재구성해내자는 의도였다. 그 중심에 한글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한글이 우리의 고유사상인 한사상의 기호작용을 온전히 담지하고 있다는 내재적인 이유 외에도, 타자에 의한 인정 및 평가척도가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기존의 한글에 대한 평가가 주로 학문적 평가유형들에 국한되어왔다는 점이다. 본고가 ‘재코드화’전략을 제안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65) 김미경, 100쪽.

디지털매체와 디자인분야가 주요 트렌드산업으로 자리를 굳혀가는 오늘날의 문화 환경을 감안해 볼 때,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핵심적 문화코드는 바로 한글 DNA 해독을 통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옥·이인화외, 『디지털 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3.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4.
- 김기덕, 『한국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7.
- 김미경,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한글』, 자우출판사, 2006.
- 김민수외, 『외국인의 한글연구』, 태학사, 1997.
- 김상일·이성은, 『퍼지미, 퍼지철학, 퍼지인간관리』, 전자신문사, 1995.
- 김영옥, 『한글 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 루덴스, 2007.
- 김정대, 「외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 연구」, 『국어학』 제43편, 2004.
- 김지하, 『화두』, 화남, 2003.
- 레이몬드 윌리엄스(이일환 옮김): 『이념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 발터벤야민(반성완 옮김),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 신은경, 『풍류,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보고사, 1999.
- 심광현, 『홍한민국』, 현실문화연구, 2005
- 에른스트 카시러(오향미 옮김), 『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 개념』, 책세상, 2002.
- 유석춘 외, 『맑스베버와 동양사회』, 나남출판, 1992,
- 이기문: 「19세기 서구학자들의 한글 연구」, 『학술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39, 2000.
- 이명현, 「새천년 한국문화를 위한 신 문법」, 『새천년의 한국문화, 다

- 른 것이 아름답다』(이어령외), 이화여대 출판부, 1999.
- 이상학, 『한·한·한의 비밀과 사명』 하권, 대원출판, 2003.
- 이승환, 『한국의 문화적 지형과 전통담론』, 『지식의 세계』(박정호 엮음), 동녘, 1998.
-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 이어령, 『문화코드』, 문학사상사, 2006.
- 이어령, 『우리 문화 박물관』, 디자인 하우스, 2007.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전통문화연구 50년』, 혜안, 2007.
- 전정례·김형주, 『훈민정음과 문자론』, 역락, 2002.
- 제갈태일, 『한 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더불어 책, 2004.
- 제프리 샘슨(신상순 역), 『세계의 문자체계』, 한국문화사, 2000.
- 존 맨(남경태 옮김), 『세상을 바꾼 문자』, 예지, 2003.
- 주간한국, 2006.12.26.
- 필벽(장왕록 옮김), 『살아있는 갈대』, 동문사, 2005.
- 홉스바움(박지향외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Guy Sorman, *Dialogue, A Narrow Road toward Peace*, The 2006 Global Forum on Civilization and Peace.
- Jan Assmann,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ünchen, 1997.
- Karl Mannheim, “*Die Ungleichheit des Gleichzeitigen*.” Mensch und Gesellschaft im Zeitalter des Umbaus, Leiden: A.W. Sijthoff, 1935.

Eine strategische Studie ueber die Verbesserung des ‘Korea-Countryimages’ in Anlehnung an die traditionsreiche Kultur

- Mit Fokussierung auf Hangeul -

An, Jang-Hyok

Im vorliegenden soll die koreanische traditionsreiche Kultur, besonders Hangeul, mit Rekurs auf das ‘Countryimage’ untersucht werden, wobei sich der aesthetische Kode des Hangeul-Zeichens auf der Ebene ‘Cultural Contents’ fokussieren laesst. In Anbetracht heutiger globaler Denkansaetze ist zu ueberpruefen, welcher Stellenwert den verschiedenen Traditionskulturen zukommt. Als ein Zentrales Verfahren innerhalb dieser strategischen Linie stellt sich sozusagen ‘Storytelling und Rekodierung’ der traditionsverbundenen Kulturen, wodurch eine semiotische Tiefenstruktur von koreanischen Kulturschaetze herauszustellen ist.

Was das ‘Hangeul-Brandingpoint’ angeht, gibt es unzaeblig viele Kunstbereiche und damit verbundene Beispiele, die die gestalterische Aesthetik von Hangeul lebendig zum Ausdruck bringen : z.B. Kalligraphien, Kleiderdesign und Tanzperformance mit Hangeul-Schriftzeichen. Hangeul wird auch bei Elektroprodukten verwendet. Beispielsweise das Handy-Modell LG-Shine Designer’s Edition, das im Oktober 2006 von LG auf den Markt gebracht wurde, zeigt auf der Rueckseite in Handschrift das beruehmte Gedicht *Die Nacht, in der ich*

die Sterne zaehle von Yun Dong-ju. Auch fuer Keramiken, Skulpturen und westliche Malerei dient Hangeul als Stoff; Schriftformdesign, Landschaftsgestaltung und Kalligraphie sind weitere Bereiche, in denen Hangeul Anwendung findet.

Dass Hangeul in den verschiedensten Bereichen als Inspiration fuer kulturelle Unternehmungen zu finden ist und als kulturelle Kraft nach vorne schreitet, ist aeueßerst erfreulich. Nicht nur Linguisten sind an Hangeul interessiert, sondern Menschen ueberall auf der Welt richten ihr Augenmerk auf dieses einzigartige Schriftsystem. Dank der Koreawelle ‘Hallyu’ und den koreanischen Konzernen, die auf den Weltmarkt vordringen, kommen immer mehr Menschen nach Korea, um Koreanisch zu lernen, und in vielen Laendern gibt es Koreanistik-Studien-gaenge. Das fuehrt zur natuerlichen Erhoehung des kulturellen Werts von Hangeul. Auch in Zukunft sollte Hangeul sorgfaeltig kultiviert und angewendet werden, denn es ist eine wertvolle Kraft, die die Kultur Koreas anfuehrt.

열쇠어 : 한글, 전통문화, 재코드화, 문화코드, 문화브랜드, 한사상, 국가이미지, Hangeul, Traditionsreiche Kulturschaetze, Rekodierung, Kulturkode, Han-Philosophie, Countryimage

투고일 : 2007.10.30 / 심사일 : 2007.11.24 / 심사완료일 : 2007.11.30